

■ 광주시장 후보들 '금호타이어' 해법 놓고 공방

정용화 “호남 홀대 아니다” 정동채 “정부가 도왔다면...”

양형일 “與 사태 해결 진정성 있게 나서야” 장원섭 “노동자 일방적 희생만 강요 안돼”

한나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와 민주당·민노당·진보신당 등 야권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구조조정 중인 금호타이어 문제 해결방안을 놓고 격돌했다.

정용화 후보는 8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금호타이어 사태의 본질은 자금난보다 금호타이어 노조 내부의 의견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사태를 악화시킨 것처럼 ‘호남기업 죽이기’나 ‘호남 홀대’를 주장하면서 본질을 왜곡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일부 야당 후보들에게 계탄을 금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지역경제와 수만 명의 민생에 직결돼 있는 금호사태에 민주당 정치인들이 한 역할이 무엇이나?”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받기에 몰두해 있고, 오히려 금호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민주당과 진보 신당 예비후보 5명이 금호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선 것을 겨냥한 것이다.

정동채 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정부가 제대로 금호아시아나를 도왔다면 오늘날 이런 사태까지 왔겠느냐”며 “금호타이어는 사측과 노동자와 협력업체 모두가 함께 협력하고 고통분담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노력을 해야한다”

고 반박했다. 양형일 예비후보도 “금호사태를 노조의 일방적 문제로 공격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여당의 시장 예비후보로서 금호타이어 사태 해결을 원한다면 정치공세 발미로 삼지 말고 사태해결을 위해 진정성 있게 나서라”고 촉구했다.

장원섭 민노당 광주시장 후보도 “정용화 한나라당 예비후보의 발언은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 반 노동 정책을 재확인시켜준 과립치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장 예비후보는 “앞선 협상에서 노조가 양보 안을 제시했음에도 회사측과 채권단은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며 “현재 금호타이어 협상의 결렬들은 노조 내부의 의견차가 아니라 정리하고, 도급화, 임금 삭감 등 노동자의 배기 투항을 강요하는 회사측과 채권단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정동채·전갑길·양형일(이상 민주당), 윤난실(진보 신당), 정찬용(무소속) 광주시장 예비후보 등은 지난 2일 금호타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 ▲채권단의 조건없는 자금 우선 투입 ▲이명박 정부의 적극적 협력 요구 ▲노·사·협업체 모두 함께 위기 극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합동 의견서’를 채택하며 ‘합리적 중재자’ 역할을 자청하고 나섰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지방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추천위원회의

민주당 전남도당은 8일 지방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추천위원회(위원장 이낙연 의원)를 열어 심사방안과 기준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은 16일까지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후보를 공개모집해 다음달 8일 최종 결정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李대통령 지지도 52.5%

호남 7.7% 포인트 상승 30.2%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호남지역의 긍정 평가가 지난달에 비해 7.7% 포인트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R&R이 지난 2일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46%p)를 실시, 8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2.5%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조사 당시 51.1%에 비해 1.4% 포인트 오른 것이다.

‘잘못한다’는 응답은 37.1%로 전달에

비해 4.2% 포인트 떨어졌다.

호남지역의 긍정 평가는 30.2%로 2월(22.5%)에 비해 7.7% 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59.5%로 4.5% 포인트 떨어졌다. 부산·울산·경남도 55.9%로 역시 2% 포인트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긍정 평가는 3.7% 포인트 상승한 데 비해 부정 평가는 10.5% 포인트 하락했다.

한편 정당지지도에서는 한나라당이 35.7%로 민주당(18.3%)을 큰 차이로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민주노동당(3.7%) 미래희망연대(구 친박연대, 3.2%) 국민참여당(2.4%) 등이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야 5당, 무상급식 공약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의 6·2지방선거 연합 논의기구인 ‘야5당 협상회의’ 산하 정책연합위는 8일 국회에서 ‘정책연합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야5당은 우선 일자리분야에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실업부조 도입 등의 정책을, 교육분야에선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일제고사 반대 등의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아동수당 도입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강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4대강 사업예산의 민생 예산 전환 ▲세종시 원안 추진에도 발을 맞추기로 했다.

/연합뉴스

■ 지방선거 핫코너

김선옥·국령애 ‘좋은 여성후보’에

‘좋은 여성후보’ 추천 운동을 추진중인 광주·전남 여성정치네트워크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 9명, 전남 3명 등 ‘좋은 여성 후보’ 12명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에 추천했다고 8일 밝혔다.



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날 김선옥(왼쪽) 민주당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와, 국령애(오른쪽) 민주당 강진군수 예비후보를 자치단체장 후보로 추천했다. 또한, 광역·기초의원에는 ▲광주시의회 이승희·강은미·홍인화(이상 선출직)·전진숙·정현애 ▲광주 서구 기초 이은주 ▲북구 기초 정순영 ▲광산구 기초 김삼미 ▲순천 기초 최미희 ▲목포시 비례 서미화 후보 등을 추천했다.

정재훈 “중소상인 지원센터 설립”

정재훈 민주당 남구청장 예비후보는 8일 “중소 상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센터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이날 지역 상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형 마트와 SSM 등의 무분별한 진출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날로 약화하고 있다”면서 “중소 상인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중소상인 경영지원센터’를 설립해 무료 직업 교육과 경영컨설팅 사업 등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 광주시장 기초장 토론회 일정 확정

민주당 광주시당은 광주지역 기초단체장 출마 예정자의 합동토론회를 ▲17일 북구▲18일 동구,▲23일 서구 순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장소는 아직 미정이다. 시민배심원제도로 경선방식이 결정된 남구의 경우는 아직 합동 토론회 일정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광주시당은 지난 3월3일 광산구청장 예비 후보들의 합동토론회를 전국 최초로 실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출마예정자에게는 당원들에 대한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당원들에게는 출마예정자들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010년도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안내 공고

A large, detailed public notice from KIDT regarding the 2010 Regional Industry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It includes sections for '지원대상사업' (Supportable Projects), '지원대상기업' (Supportable Companies), '지원대상분야' (Supportable Fields), and '지원내용' (Support Content). The notice is filled with text, tables, and diagrams, providing comprehensive information for eligible businesses and organizations.